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서의 협상력은 개선될 수 있을까

2014. 7. 2

통신/미디어
Analyst 김준섭
02-3779-8919
jskim@etrade.co.kr

미래부-방송위, PP산업발전전략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PP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PP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플랫폼과 PP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유료방송 저가 요금구조 개선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지원 등 3대 전략에 9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또, 정부는 플랫폼-PP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20%)을 중소, 개별 PP채널로 의무구성하는 채널 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MPP에 긍정적인 요소: 디지털 방송요금 상한액 기준 폐지,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감면

정부는 PP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며, 현재 디지털 방송요금 상한액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통사가 통신서비스에 유료방송상품을 끼워팔면서 방송시장의 저가화를 고착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적정 결합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는 PP입장에서 Price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다만, IPTV나 MSO 업체에는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 PP업체들의 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 투자비용에 대해 세액 감면(투자비 10%)은 비용 절감 측면에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항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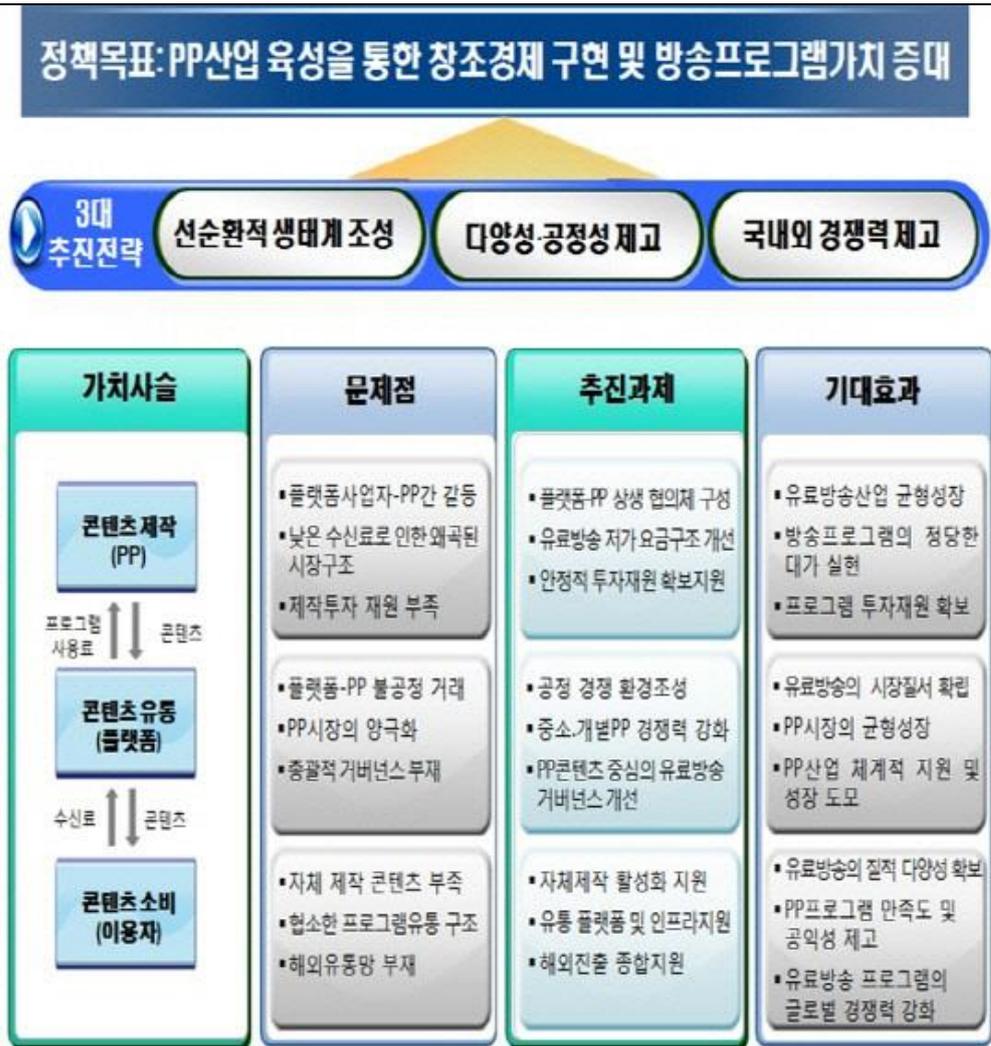
매출점유율 제한을 푸는 정책이 빠진 점은 MPP에 아쉬운 점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는 PP업체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PP의 매출이 전체 PP매출합의 33%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대형PP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매출점유율 제한 해소가 산업발전 전략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당분간 매출점유율 제한 개정이 이슈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P산업발전전략의 레슨: PP산업의 협상력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컨텐츠 산업에서도 가치사슬 내 각 주체간 협상력 주도 게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PP가 양질의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데 있다. 결국 PP산업의 약한 협상력을 정책적으로 개선해주기 위한 움직임이고 이에 따라, 협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1] PP산업발전 전략의 개요



자료: 미래부,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김준섭)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부류